

‘교감’으로 힐링하고 ‘미디어’로 세상 읽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최고의 전시로 공동 선정된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전.



올해의 작가 1위로 선정된 노순택과 공동 2위에 꼽힌 이우환·이불·최정화(왼쪽부터)

‘올해의 전시’에 리움 ‘교감’·미디어시티 2014 공동 선정... ‘올해의 작가’ 노순택

2014년 많은 사람이 세상을 잠시 잊으려, 때론 그 세상을 대면하려 미술을 찾았다. 올해 미술계 인사들이 꼽은 최고의 전시로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 ‘교감’과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가 꼽혔다. 전자가 미술을 통한 힐링이었다면, 후자는 미술을 통한 세상 엿보기였다.

조선일보가 평론가, 기획자, 미술 시장 전문가 등 미술계 인사 34명을 대상으로 ‘2014년 미술계 결산’을 설문한 결과이다. ‘올해의 작가’ ‘올해의 전시’ ‘올해의 이슈’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분야별로 3건을 추천했다.

◇ ‘교감’ 하고 ‘역사’ 를 보다

‘교감’ 전과 ‘귀신 간첩 할머니’ 전이 전시 부문에서 공동 최다 득표

(11표)를 했다. ‘교감’ 전은 통섭의 시대에 어울리는 전시였다는 평이다.

미술평론가 조은정씨는 “그사이 미술과 다른 분야 간 경계 허물기는 많았지만 정작 미술계 내에서는 장벽이 높았다. 관객은 이미 통섭의 시대를 사는데 미술이 그를 반영하지 못했다. 고미술과 현대미술, 동양과 서양, 미술과 관람객의 간극을 좁힌 시도”라고 말했다. ‘귀신 간첩 할머니’ 전은 “그간 테크놀로지의 시각적 장(場)이었던 미디어 전시를 ‘내러티브’로 새롭게 접근했다”고 평가받았다.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귀신, 할머니, 간첩이라는 기발한 키워드로 아시아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주제를 뽑아낸 점이 돋보인다”고 했다. 귀신은 아시아의 잊힌 역사와 전통, 간첩은 식민과 냉전의 기

역, 할머니는 귀신·간첩의 시대를 견뎌낸 여성의 시간을 의미한다.

3위(8표)는 올 한 해 미술계를 강타한 1970년대 단색화 열풍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국제갤러리의 ‘단색화의 예술’ 전이 선정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서울과 부산에서 50만 명이 찾은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 회화 100선’ 전,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를 내세운 제10회 광주 비엔날레가 4위(5표)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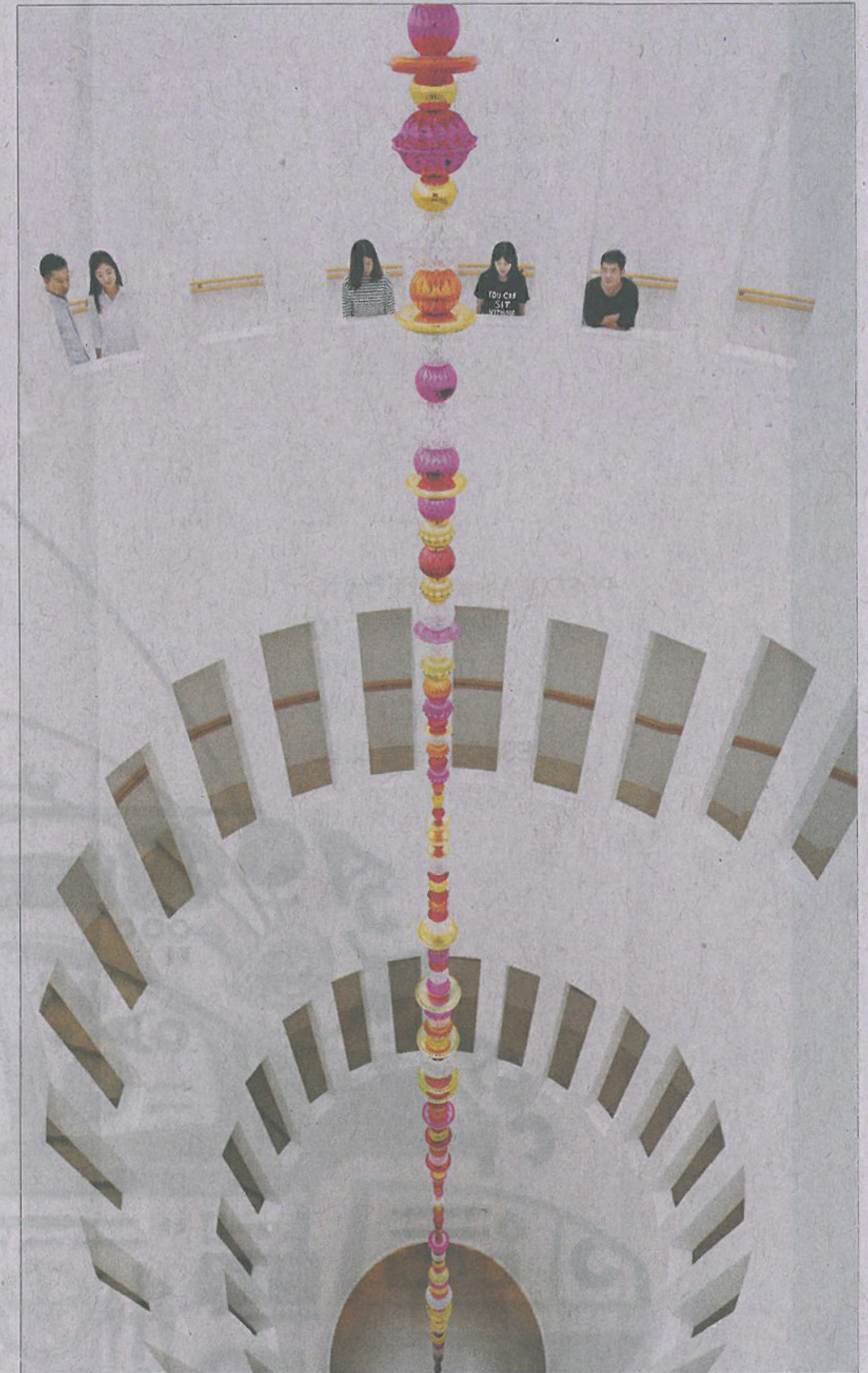
◇ 신인의 전진과 노장의 견재

사진가로서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상을 탄 사진가 노순택이 이번 설문에서도 1위(12표)에 올랐다. 그 어느 해보다 복잡다단했던 2014년이 사회를 직시하는 그의 작품에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분석. 사진심리학자 전수진씨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 개인의 시

선으로 사회 문제를 보여줘 공감을 불러낸다. 사진 매체가 주로 쓰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설치물과 함께 전시하는 등 색다른 방식을 모색했다”고 했다.

공동 2위(6표)엔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개인전을 연 이우환,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첫 작가로 전시 중인 이불,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인전을 연 최정화가 꼽혔다.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회고전을 연 국내 1세대 전위작가 김구림, 런던 테이트 모던 탱크전에 이어 첫 국내 개인전을 연 김성환이 공동 5위(5표)에 선정됐다. 영국 프리즈 아트페어의 원로 작가전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초대된 이승택과 올해 베네치아건축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 황금사자상을 탄 건축가 조민석이 공동 7위(4표)였다.

김미리 기자



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최고의 전시로 공동 선정된 리움 10주년 기념전 ‘교감’에 전시된 최정화의 작품 ‘연금술’.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나선형 계단과 수직으로 떨어지는 설치물이 조화를 이룬다.